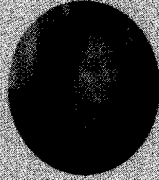


책임으러 오실래요?



김 옥 선 / 어린이 도서연구회

내 옷장 안에는 적지 않은 옷이 걸려있다. 모양도 색깔도 다른 옷들이지만 그 옷을 살 때는 내가 갈 자리나 때를 마음에 두고 고른다. 그렇게 적지 않은 옷가지 가운데 다른 옷보다 많이 헐고 구김도 많은 옷이 있다. 바로 내가 즐겨 입는 옷이다. 그 옷들을 살펴보면 내 몸보다는 풍성해서 입으면 한없이 편안한 옷들이다.

내가 하는 일도 그렇다. 일 따라 만나는 사람 다르고 가는 곳 다르지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도 가는 곳도 이렇듯 편안한 옷에 맞는 일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린이 도서연구회다. 어린이 도서연구회를 '새앙쥐 풀빵구리 드나들 듯' 드나든지 벌써 십 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이 곳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 책읽기에 도움이 될 듯 싶어서, 지금은 나 스스로 책 읽는 즐거움에 푹 빠져 다닌다. 어찌다 몸이 아파 한 주쯤 빠지면 한 나절이 못 돼 마음은 벌써 거기로 가 있다. 한 주 동안 못 만난 고운 선배, 동무, 후배들이 벌써 그리워 몸은 아픈데도 마음은 들떠 어린이 도서연구회 사무실을 향해 뛰

박질한다.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를 갖기에 그곳만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이렇듯 들뜨고 뜨거워지는가!

이 곳에서 내 자리는 어린이 문학·문화에 대한 온갖 정보를 모아놓는 어린이 도서연구회 인터넷집 운영과 청소년 문학 공부이다.

인터넷집 운영은 어린이 문학·문화에 대한 자료를 모아놓는 일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곳은 보다 밝고 올곧은 마음으로 어린이 문학·문화 토양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들락거린다. 그들은 우리가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하여 실천하는 데 애쓴다. 어설픈 손놀림으로 더듬더듬 배운 html문서작성이지만 자료를 모으고 올리는 과정, 올린 자료 고맙게 잘 봤다는 독자들의 반응을 대하면서 빈자리 보이는 집안도 그 때만은 남의 일로 미뤄 놓을 수 있다.

청소년 문학 공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옮겨가는 과정을 따라 엄마인 나도 어린이 문학에서 청소년 문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

공부 못하는 아이들, 책 안 읽는 아이들, 가출해 탈선한 청소년들과 공부 중심의 세상에 신음하며 자꾸만 거칠어지는 청소년들. 세상은 그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 또한 다양한 문화와 인간 삶을 이루는 근원이라 자분자분 내게 속삭인다.

었다. 이는 나와 우리 아이들을 훨씬 가깝게 맺어주는 끈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읽고 좋다 생각하는 책을 읽으라고 애써 권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책에서 마음이 떠 있으며 책보다는 그들을 자유스럽게 해 주는 여러 매체를 잘 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뜨문뜨문 우리 아이들이 책과 글쓰기에 대해서 물어올 때마다 애써 모르는 척 하며 일러주는 재미도 쏠쏠하다. 청소년 문학을 고민하며 내가 얻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끌어안고자 애쓰게 됐다는 것이다. 내가 그럴 수 있는 까닭은 청소년 문학을 함께 고민하며 청소년들의 현실을 애써 붙들고 보듬고자 하는 아줌마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아줌마들은 자기 앞에 놓인 현실 삶을 붙들기보다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고민하며 이 세상과 사회에 맑은 물줄기이고자 한다. 나는 그들을 만나며 우리 식구와 우리 아이 그리고 내가 이미 얻은 것을 애써 끌어안고자 발버둥치던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들의 삶은 이미 내 삶의 거울이다. 그래서 어린이 문학과 청소년 문학은 내겐 더없이 소중하다. 그것은 이제 내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진정한 삶을 향한 지표로 깊게 드리운다. 문학이 이슬비 돼 내 옷을 적시듯 내 삶 구석구석을 촉촉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들 것만이 아니다. 거기에 깃들여 있는 것은 내가 안고 있는 이기적이며 속물적인 세상의 잣대를 다원적인 문화인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책 안 읽는 아이들, 가출해 탈선한 청소년들과 공부 중심의 세상에 신음하며 자꾸만 거칠어지는 청소년들. 세상은 그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 또한 다양한 문화와 인간 삶을 이루는 근원이라 자분자분 내게 속삭인다. 그 속삭임이 메아리 되어 내 삶, 우리 삶을 향해 외치는 날 더욱 따뜻한 세상에서 살리라, 우리는 아니 나는. **2013**